

역사의 틈새 속 여성과 계급, 민족의奇遇

— 1930년대 중국여성작가 샹오홍(蕭紅)의 소설 —

오경희*

1. 머리말
2. 샹오홍의 생애와 창작
3. 여성과 계급, 민족의 奇遇
4. 역사 틈새 속의 여성
5. 역사 틈새 속의 남성
6. 맺음말

*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국문초록

중국의 현대문학 평자들은 샤오홍과 루쉰(魯迅)의 공통점은 그들이 혁명과 항전이라는 역사 주류담론의 틀을 넘어서 보다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인간 마음의 역사, 사회관계의 역사'를 탐구했다는 점에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샤오홍이 문단에 들어선 1930년대에 여성작가의 지위와 정체성은 5.4 신문화 운동시기와는 달리 새로이 해방된 지식여성이라기 보다는 국가가 당면한 항일과 혁명에 다 함께 매진해야하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존재하여야 했다.

그러나 샤오홍은 당시 표면적인 역사와 시대의 주류 담론을 추수하거나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공을 초월한, 더 깊고 넓은 주변인의 통찰력으로 역사의 틈새 속에 존재하는 인간성과 인간의 삶 이면의 모순과 복잡한 속내를 고집어낸다. 그리고 그 복잡한 인간의 속내 안에 민족과 성, 계급의 문제가 얽혀 있음을 본다. 그래서 그녀 소설의 주제는 한 가지 측면에서만 보기에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다. 무엇보다도 인물과 심리 묘사에 능한 샤오홍 소설의 가장 큰 정신적 줄기는 생명과 인간애의 사랑, 그 중에서도 여성의 눈으로 감지한 주변적 존재들에 대한 통찰력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위의 논지를 바탕으로 하여 샤오홍의 생애와 창작의 특성을 살펴보고 샤오홍 문학의 큰 줄기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작품을 고찰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샤오홍 문학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이해하고 그 문학적 가치를 재평가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핵심어 : 1930년대, 역사의 틈새, 여성, 계급, 민족, 여성의 역사 통찰력

1. 머리말

샤오홍(蕭紅)은 매우 비극적이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여성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그가 서른한살의 나이에 요절했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짧은 생애도 그리 순탄치 못했던 것에 연유한다. 샤오홍은 중국의 최북방인 헤이룽지양성(黑龍江省)에서 태어나 부모의 냉대 속에 자라났다. 열여섯살 때 정혼을 피하기 위하여 가출을 했고 유랑 끝에 다다른 국토 최남단인 홍콩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다. 그리고 모두 합해 십년이 채 안되는 창작 기간 동안 세 편의 중·장편소설과 40여 편에 이르는 단편소설, 70여 편의 산문 작품을 남겼다.

이러한 샤오홍을 훌륭한 작가로 인정하여 가장 먼저 중국학계에 알려진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인 중문학자 고허오원(葛浩文, Howard Goldbatt)이었다. 그는 1979년 자신의 박사논문이기도 한 샤오홍의 인생과 작품을 분석, 평가한 『샤오홍평전 蕭紅評傳』을 홍콩과 하얼빈에서 출판한다. 이는 1989년에 『샤오홍신전 蕭紅新傳』¹⁾으로 개정되어 재출간된다. 이후 중국에서 샤오홍의 문학은 시간이 갈수록 마치 숨겨졌다 발견된 보석처럼 독특하고 개성적이라는 호평 속에 연구자들의 애정과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샤오홍이 중국의 민족혼이자 현대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쉰(魯迅)이 키운 작가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루쉰이 그녀의 『생사장 生死場』서언(序言)에 써준 ‘여성 작가의 세밀한 관찰과 혼한 틀을 초월한 필치’가 ‘아름답고 신선함을 더해준다’²⁾라는 평가는 그녀에 관해 쓴 논문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전용 평문이 되었다. 또 그녀의 작가적 지위와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사장되어온 그녀의 작품은 속속 발견되는대로 중국현대소설사

1) 葛浩文, 『蕭紅新傳』, 香港三聯書店, 1989.

2) 루쉰(魯迅), 「生死場」序言, “...女性作者的細致的觀察和越軌的筆致, 又增加了不少明麗和新鮮”,

『蕭紅文集』중단편소설집, 安徽文藝出版社, 1997, p.221.

와 문학사 속에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과 작품에 관한 재평가와 분석들이 ‘샤오홍현상’(蕭紅現象), ‘샤오홍열’(蕭紅熱)이라 불릴 만큼 수도 없이 쏟아져나오고 있다³⁾.

1989년에 나온 중국 최초의 현대여성문학 연구서인 『역사의 표면 위로 떠오르다 浮出歷史地表』⁴⁾에서 저자는 샤오홍의 인생과 문학을 가리켜 “대지용자(大智勇者)의 탐색”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이는 샤오홍의 작가로서, 여성으로서 선택적 태도에 기인하여 부여된 명칭이다. 본서의 저자는 혁명과 항전 일색이었던 삼십년대 문단에서, 진보적인 작가였던 샤오홍이 혁명의 주류를 따라 복진을 하지 않고 남하를 결심한 것과 남자답지만 권위적이었던 남편 샤오쥬(蕭軍)과 헤어져 두안무홍리양(端木蕻良)이라는 유약한 남자를 선택한 것은 여성으로서 억압을 거부하고 작가로서 창작의 본색을 지키고자 한 지혜롭고 용기있는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⁵⁾

샤오홍은 당시 표면적인 역사와 시대의 주류를 추수하거나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공을 초월한, 더 깊고 넓은 주변인의 통찰력으로 역사의 틈새 속에 존재하는 인간성과 인간의 삶 이면의 모순과 복잡한 속내를 끄집어낸다. 그리고 그 복잡한 인간의 속내 안에 민족과 성, 계급의 문제가 얽혀 있음을 본다. 그래서 그녀 소설의 주제는 한 가지 측면에서만 보기에는 중층적이고 복잡적이다. 무엇보다도 인물과 심리 묘사에 능한 샤오홍 소설의 가장 큰 정신적 줄기는 생명과 인간에의 사랑, 그 중에서도 여성의 눈으로 감지한 여성이라는 주변적 존재에 대한 통찰력이라 할 수 있다.

3) 중국의 蕭紅연구가 중의 한 사람인 皇甫曉濤는 저서 『蕭紅現象』(천진인민출판사, 2000)에서 80년대 이후 蕭紅 연구의 성행을 ‘蕭紅熱’이라 이름하고, 이는 단순히 한 작가의 사상이나 예술적 성취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현대문화사상이 그동안 겪은 역사적 곤혹을 벗어나 현대 사상사의 학술적 진전과 현대문학 연구 이론의 역사적 전환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나온 문화현상으로 자신은 이를 ‘蕭紅現象’이라 명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4) 원서는 戴錦華·孟悅, 『浮出歷史地表』, 河南人民出版社(1989)이다.

5) 戴錦華·孟悅, 앞의 책, p.182.

이 논문은 위의 논지를 바탕으로 하여 샤오홍의 생애와 창작의 특성을 살펴보고 샤오홍 문학의 큰 줄기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작품을 고찰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샤오홍 문학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이해하고 그 문학적 가치를 재평가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2. 샤오홍의 생애와 창작

샤오홍은 1911년 6월 1일 중국 동북쪽 헤이룽지양성(黑龍江省)의 후란현(呼蘭縣)의 지주 집안에서 태어났다. 샤오홍의 본명은 쟡나이잉(張乃瑩)이며 샤오홍(蕭紅)은 차오인(悄吟)과 함께 쓰이던 그녀의 필명이다. 샤오홍은 아홉 살때 생모를 여의고, 그녀를 한번도 좋은 얼굴로 대하지 않고 자주 매를 때렸던 부친과 냉담하기 그지없는 계모 아래서 자랐다⁶⁾. 그 때문에 그녀는 주로 조부의 슬하에서 성장하였다. 그녀는 “인생에 냉랭함과 미움 외에 따뜻한 정과 사랑도 있음을 할아버지에게서 알게 되었다.”⁷⁾

그녀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봉건적 정혼에 반항하여 가출하였던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30년 그녀는 사촌오빠를 따라 베이징으로 가서 여사대부중에 다니던 중 오빠의 친구인 리모를 알게 되었으나 그는 이미 처자가 있는 유부남이었다. 그녀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에 상심하면서 지내다가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한번의 기출로 ‘호적에서 지운다며’ 화를 내는 부모의 냉대와 핍박 때문에 다시 집을 나온다. 그 때 정혼했던 약혼자의 유혹에 끌려 그와 여관에서 7개월을 동거했고 어느 날 그는 돈을 구하러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밀린 여관비를 내지 못하여 주인에게 인질로 붙잡혀 사창가에 팔려갈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

6) 范橋, 盧今 編,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에 祖父死了的時候」, 『蕭紅散文』,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5, pp.311~315.

7) 范橋, 盧今 編, 「영원한 동경과 추구 永久的憧憬和追求」, 〈蕭紅散文〉, p.316.

때 그녀는 출산을 앞 둔 만삭의 몸이었다. 그러한 궁지 속에서 그녀는 학창 시절, 독자로서 종종 글을 투고하곤 하던 하얼뻬 국제협보라는 신문에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여관의 창문을 통해 던진다. 얼마 후 그녀는 그 쪽지를 보고서 그녀를 구하러 온 국제협보의 기자이자 문인인 샤오권(蕭軍)⁸⁾과 결혼한다. 샤오권은 그 여관에서 샤오홍이 똑바른 글씨체로 써 놓은 「봄노래 春曲」라는 시를 보고서 그녀에게 반해 '맑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빛나는 영혼'을 지닌 그녀와 결합하였다⁹⁾. 두 사람은 신혼시절 하얼뻬 상시지에(商市街)라는 곳에서 동거하며 투고한 글을 모아 공동으로 소설집 『발자취 跋涉』(1933년)을 출판한다. 샤오홍은 이 소설집에 차오인(悄吟)이라는 필명으로 다섯 편의 하층 농민여성의 수난과 항일의식 고취를 다룬 단편소설¹⁰⁾을 발표한다. 그 중에 「왕씨아줌마의 죽음 王阿嫂的死」은 가난한 하층여성인 왕씨아줌마의 비극적 운명을 그리고 있다.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인 왕씨아줌마는 부모를 잃은 일곱 살짜리 여자아이 샤오환을 데려다 키운다. 그녀의 남편은 지주의 분노차를 모는 차부였다. 그는 지주가 일년동안이나 임금을 주지 않자 화가 나서 술에 취해 쪼풀더미 위에서 잠이 든다. 그리고 지주가 쪼풀 위에 불을 붙인 사실을 모른 채 자다가 죽고 만다. 왕씨아줌마는 만삭의 몸으로 일을 하다가 지주에게 배를 발길로 차여 피를 흘리며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 불쌍한 고

8) 샤오권(蕭軍)(1907~)은 본명이 劉鴻霖으로 요령성 의현 농촌 의용군 출신의 혁명소설가이다. 대표작으로 장편소설 「팔월의 향촌 八月的鄉村」이 있다. 1932년 당시 하얼뻬 국제협보 문예부간의 편집기자로 있던 중에 샤오홍을 만나게 된다. 그는 유약하고 겁이 많은 샤오홍과는 달리 성격과 말투가 거칠고 폭력적이었으며 주사가 있었다.(葛浩文, 19)

9) 「봄노래 春曲」는 짧은 시로서 번역해보면, “나뭇잎새 푸르렀고 맑은 시냇물 노래 하니, —소녀야! 봄이 왔다! // 바로 작년 이맘때 베이징에선 살구를 먹었는데, 올해 나의 운명은 살구보다도 더 시도다”이다. 원문 참조는 盛英 주편, 『이십세기중국여성문학사·상』, 천진인민출판사, 1995년, p.247.

10) 『발자취 跋涉』에 실린 샤오홍의 소설은 「왕씨아줌마의 죽음 王阿嫂的死」, 「검정 강아지 小黑狗」, 「연날리기 구경 看風箏」, 「밤바람 夜風」, 「광고 보조 廣告副手」로 다섯 편이다.

아 샤오환은 또 다시 혼자 남게 된다. 이 작품은 하층 여성에게 닥치는 중층적 비극을 통해 계급모순 속에 가중되는 여성의 수난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의 수난은 단순히 계급 모순 뿐만 아니라 여성적 경험 세계를 압박하고 짓누르는 성적 억압을 드러낸다. 가난 중에도 고아 샤오환을 돌보는 왕아쭈마의 모성에와 임신은 그녀가 지주에게 남편을 잃고 발길로 배를 걷어차이는 폭력 속에서 더 지속할 수 없게 된다.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냉랭한 폭력의 세계 속에 또 다시 혼자 던져져 울부짖는 샤오환의 미래도 역시 어두울 뿐이다.

또 다른 작품 「광고 보조 廣告副手」는 도시에서 빈궁한 생활을 하며 영화간판 보조로 일하는 여성이 생활고와 사회와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이중적 억압에 대한 그녀의 내면심리를 복합적으로 그리고 있다. 극장에서 보조로 영화간판을 그리는 친은 몸이 아픈데도 출근을 한다. “난 결코 내 피로 그림을 그릴 수 없어, 없어! 그러나 어떡해? 월 이십원...이십원...”, “쌀자루가 비었지! 페일리가 매달 받는 원고료 5원도 당겨서 이미 다 써 버렸잖아!”¹¹⁾라고 중얼거리면서. 그러다 그녀는 실수로 페인트 통을 그림 위에 엮질러 페인트 흔적을 지우느라 밤늦게 돌아온다. 돌아오며 “그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페일리가 집에서 또 화를 내고 있을까봐 바쁘게 종종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배는 아프지 않았다. 어떤 병도 다 그녀의 몸에서 달아나버렸다.”¹²⁾ 그러나 그동안 집에 돌아온 남편 페일리는 몸이 아픈 아내가 문도 열어놓고 직장에 나간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한다. 극장으로 그녀를 찾으러 간 그는 아내를 찾지 못하자 필경 아내가 영화를 보는 것이라며 화가 나서 마지막 남은 5전의 돈마저 술을 사는데 써버리고 술에 취해 그녀를 괴롭힌다: “직장 때문에 문도 열어놓고 나가다니!” “나도 싫으면 문 열어놓고 나가...”¹³⁾ 이튿날 아침, 그들이 돈이 없어 아침끼

11) 「광고 보조 廣告副手」, 『蕭紅文集』 중단편소설집, 안휘문예출판사, 1997년, p.65.

12) 「광고 보조 廣告副手」, 위의 책, p.71.

니마저 굵고 있을 때 극장동료가 찾아와 어제 친의 실수를 발견한 극장 사장이 친을 해고했다는 소식을 알려준다. 이 소설은 샤오홍이 결혼 후에 남편에게 억압당하며 빈궁하게 살았던 경험을 쓴 것으로 자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934년 그들 부부는 하얼빈을 떠나서 칭다오(靑島)로 간다. 샤오홍은 그 곳에서 유명한 중편소설 『생사장 生死場』을 완성한다. 그해 11월, 상하이로 간 그들은 작품을 들고 당시 문단의 대부라 할 수 있는 루쉰을 찾아 간다. 루쉰은 샤오홍의 『生死場』을 극찬한다. 이 때부터 샤오홍은 루쉰·쉬광핑(許廣平) 부부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루쉰 곁에서 지도를 받는다. 루쉰의 부인인 쉬광핑(許廣平)은 처음 샤오홍을 만났을 때의 인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녀는 방금 봉건가정을 뛰쳐 나온듯한, 이 ‘복잡하고 변화한 천지’ 중에서 ‘당황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노라’와도 같았다.¹⁴⁾”

1935년 루쉰은 주필을 맡고 있는 <노예총서>의 시리즈로 이 작품을 출판한다. 이 때 루쉰은 직접 『생사장 生死場』의 서문을 써주고 그녀를 “중국에서 가장 전도유망한 여성작가”라고 칭찬하였다. 『생사장 生死場』은 많은 독자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스물세살을 갓넘긴 샤오홍은 이 작품으로 인해 유명해졌고 어려운 생활 중에도 큰 기쁨과 생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 시기 그녀는 계속해서 작품을 발표한다. 1936년 그녀의 단편소설 집 『다리 橋』와 산문집 『상스지에 商市街』는 역시 빠진(巴金)이 주편하던 <문학총간 文學叢刊>의 시리즈로 출판된다. 이즈음 문단에서 그녀의 위치는 공고해졌지만 결혼생활과 부부감정은 위기를 맞는다.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인한 충격은 연약한 그녀의 정신과 육체를 뒤흔들었다¹⁵⁾. 1936년 7월, 그녀는 일본으로 요양을 떠난다. 일본에서 반년 간 질병과 고독과 싸

13) 「광고 보조 廣告副手」, 위의 책, p.74.

14) 許廣平, 「追憶蕭紅」, 『蕭紅文集』 散文詩歌及其他, p.377.

15) 葛浩文은 이 때 샤오홍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바로 샤오윈과 헤어지지 못한 이유는 그녀가 애써서 그의 우월감과 이기심을 맞춰주었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葛浩文, 34)

위가며 그녀는 「소달구지 위에서 牛車上」, 「가족 이외의 사람 家族以外的人」 등을 썼다. 샤오홍은 일본에서 돌아와 상하이, 베이징, 우한을 거쳐 우창(武昌)으로 갔다. 1938년 그녀는 샤오권, 티엔지엔(田間), 두안무홍리양, 네간루(聶紺弩), 덩링 등 진보작가들과 함께 산시 린훤(山西 臨汾)의 민족혁명대학에서 교사를 하기도 한다. 이 때 함께 했던 여성작가 덩링(丁玲)은 후에 이 시절 “샤오홍의 창백한 얼굴, 꼭 다문 입술, 민첩한 동작과 신경질적인 웃음”을 잊지 못한다고 했고 그녀가 세상에 찌들지 않은 단순함과 순수함을 가진 작가라고 회고한 바 있다¹⁶⁾. 그 해 4월, 샤오홍은 샤오권과 헤어진다. 당시 샤오홍은 친하게 지냈던 작가 네간루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샤오권을 사랑해, 지금도 그를 사랑해, 그는 우수한 소설가고, 사상적으로도 동지고, 또 환란을 함께 버텨왔잖아! 그런데 그의 아내 노릇은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남자들이 왜 그리도 성깔을 부리는건지 모르겠어, 왜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성질을 내는지, 왜 그리 아내에게는 불성실한지 말이야! 굴욕을 참고 산지가 너무 오래되어 버렸어……”¹⁷⁾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두 번째 남편이 된 두안무홍리양(端木蕻良)¹⁸⁾과 우한으로 와서 결혼한다. 그러나 샤오홍은 자신이 늘상 “겁쟁이, 기회주의자, 아침쟁이, 온종일 거드름만 피우는 사람”¹⁹⁾이라고 말했던 두안무홍리양과 그리 행복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성인 자기 자신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녀의 가녀린 소망을 이렇게 외쳤다. “너는 알아? 나는 여자가야, 여자의 하늘은 낮고 날개는 약하지, 그런데 주변의 번거로운 일들이 또 힘이 들고 얼마나 지겨운지! 여자는 너무 많은 자기 희생을 해, 이건

16) 丁玲, 「風雨中憶蕭紅」, 『丁玲散文』,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7년, p.323.

17) 聶紺弩, 「在西安」, 『蕭紅文集』 散文詩歌及其他, 안휘문예출판사, p.411.

18) 두안무홍리양(端木蕻良)은 1912년 요령성 창도현 출신의 현대 소설가이다. 본명은 曹蘭柱, 그는 淸華대학에서 공부했고 초기에는 소설을 썼다. 샤오홍과 함께 한 1939년에 그는 상하이 푸단대학에서 교편을 잡기도 하고 1940년 홍콩에 서는 『시대문학』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다.

19) 聶紺弩, 위의 책, p.413.

용감한 게 아니라 되려 비겁한 거야, 바로 오랫동안 의지도 없이 희생만 한 상태에서 길들여진 타성인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생각 안할 수가 없는거지, 내가 도대체 뭘까? 굴욕은 또 뭐야? 재난은 또 뭐야? 심지어 죽음은 또 뭐야? 난 모르겠어, 결국 나는 하나일까 둘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이고, 저런 생각을 하는 것도 또 나겠지. 맞아, 난 날고싶어,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그 순간 난 떨어져버릴 것만 같아.”²⁰⁾ 그 해 9월, 그녀는 고독과 번민 중에 상하이로 와서 집필에 몰두한다. 「광야의 외침 曠野的呼喊」, 「산아래 山下」, 「도피 逃難」, 「몽롱한 기대 朦朧的期待」, 「루쉰선생님을 추억함 回憶魯迅先生」 그리고 장편소설 『후란허 이야기 呼蘭河傳』 등을 썼다. 그녀는 1940년 1월, 홍콩으로 가서 루쉰을 기념하는 무언극 「민족혼 民族魂」과 장편소설 『마바올 馬伯樂』을 쓰는 동안 상하이에서 집필한 작품들을 모아 『샤오홍산문집 蕭紅散文集』과 함께 출판한다. 1941년에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그녀가 쓴 작품으로는 「북중국 北中國」, 「3월의 도시 小城三月」 등이 있다.

1941년 성탄절에 일본군은 홍콩을 함락하였다. 마침 이때가 홍콩이 일본군에 의해 함락되던 때였으나 폐렴으로 입원 중인 그녀는 탈출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²¹⁾ 1942년 1월, 병원마저 일본군대에 점령당하자 다급해진 의사가 폐렴을 후두염으로 오진, 수술도 잘못되어 그녀는 말을 하지 못한 채 며칠을 견디다가 결국 고통 가운데 사망하였다. 그녀의 임종을 지켰고 그녀 사후 평전을 출간한 작가 루어벤지(駱賓基)²²⁾는 샤오홍이 죽기 전에 『후란허 이야기 呼蘭河傳』 2부를 써야한다고 안타까워했으며 이렇게 죽기는 싫다고 절규했다고 전한다²³⁾. 1957년 8월, 중국작가협회는 홍콩에 있던 그녀의 유골을 광둥성 광주의 혁명열사 묘지로 이장하였다.

20) 蕭緝弩, 위의 책, p.410.

21) 葛浩文, 『蕭紅新傳』, 香港三聯書店, 1989, p.145.

22) 루어벤지는 샤오홍 사후에 1947년 上海建文書店에서 『蕭紅小傳』을 펴냈다. (葛浩文, p.10)

23) 葛浩文, pp.144~145에서 재인용.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샤오홍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살다 갔지만 그녀가 남긴 작품은 작가로서 그녀의 역량과 정신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1930년대 문단에서 이처럼 짧은 시간에 샤오홍만큼 독특한 성과를 낸 작가는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혁명과 항전의 시대라고 하는 1930년대에 주류적 대서사를 거부하고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인간의 삶과 정신을 탐색한 여성작가는 더욱 드물다.

3. 여성과 계급, 민족의 奇遇 : 『생사장 生死場』

1934년에 쓰여진 『생사장 生死場』은 지금까지 우매한 농민의 각성과 항일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²⁴⁾ 모두 17장으로 되어있는 이 소설은 특별한 주인공이나 사건의 기복 없이 1930년대 만주 사변 전후의 하얼빈 부근의 농민들의 삶과 죽음의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주인공이나 사건의 기복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넓게 펼쳐진 보리밭과 채소밭을 따라 평화로운 듯 흘러가는 농촌의 풍경저 편, 삶과 죽음의 한 자리에서 성적 모순과 계급 모순, 그리고 민족의 위기와 모순이 기이하게도 만나고 있다.

마을 정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생사장 生死場』의 제1장에는 양 한마리를 잃었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농부 얼리반의 모습이 등장한다. 뒤이어 채소 밭에서는 동네의 젊은 청년남녀 청예와 진즈의 연애가 펼쳐진다. 그리고 늙은 말이 농사에 쓸모없어져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 마을에서 가장 미인이었던 위에잉이 몹쓸 병에 걸려 구태기가 들끓는 썩어가는 다리를 치료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야기 등 농민의 우매함과 동물과도 같은 생명, 그리고 정신과 의식이 결핍된 삶의 모습이 펼쳐진다: “죽은 사람은

24) 김철·권제봉, 『중국현대문학사』, 청년사, 1989, pp.337~338.

죽어도 산 사람은 어찌 살아갈 것을 생각한다. 겨울에 여자들은 여름 옷을 준비하고 남자들은 내년에 경작할 것을 걱정한다.²⁵⁾” 소작인인 그들 농민은 매년 거두어들인 소작물과 지세를 지주에게 바쳐야한다. 소설 속에는 왕포아주머니가 늙어서 경작에 도움이 안되는 정든 말을 판 돈을 돌아오는 길로 기다리고 있던 지주의 하인들에게 빼앗기는 장면이 나온다. 이를 두고 작가는 “왕포아주머니의 반나절의 고통은 대가를 얻지 못한 것이다. 그녀 일생의 고통 또한 댓가는 없을 것이다.”²⁶⁾라고 서술하고 있다. 왕포의 남편인 짜오산은 리칭산과 함께 지주에게 대항하는 ‘염도회’를 만들어 대항한다. 어느 날 지주가 지세를 올리려 한다는 말에 반발하여 흥분하다가 급기야는 줌도독의 다리를 부러뜨린 일로 감옥에 가게 된다. 그리고 또 지주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온다. 출옥 후에 그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모두 도독의 보상금과 치료비로 내준다. 그런데 도독이 병원에서 나온 얼마 후 진짜 죽어버리자 그는 소 판 돈의 절반은 돌려받고 나머지 절반은 중간에 일해준 지주집 하인에게 준다. 주인집 하인은 이 일로 저 일로 잡비를 많이 썼다며 절반을 가져간다. 지세는 오르지 않았지만 소를 팔아버린 탓에 쟁기도 없이 논을 가느라 그들 가족은 지세가 오른 것이 상으로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했다. 게다가 짜오산은 이 일이 있는 후 이전의 반항적 태도를 돌변해서 지주에게 순종한다. 왕포는 그런 남편의 어리석음을 경멸한다.

소설 중에는 이러한 농민의 우매함과 계급 모순의 사이 사이에 여성들만이 겪는 고통적 경험과 남성에 의한 성적 착취의 모습이 보인다. 작가는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경험 속에서 여성이기에 겪어야만 하는 중층적 고난과 고통을 그려내었다. 여성들의 ‘원죄’와도 같은 신체적 ‘형벌’—임신과 출산의 고통,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동미쳐져 죽는 갓난아기를 안고 울부짖는 엄마의 고통, 불치병으로 남편에게마저 버림받고 쓸쓸히 죽

25) 『生死場』, 『蕭紅文集』 중단편소설집, p.258.

26) 『生死場』, 『蕭紅文集』 중단편소설집, p.251.

여가는 여인, 강간과 성희롱 속에 생계를 유지하고자 생활전선에 나선 여인들의 모습 등등. 『생사장 生死場』은 이러한 여성의 ‘몸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여성만이 가진 ‘삶과 죽음’의 특수한 함의를 구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의 고통은 오랫동안 농민들 일상의 우매함과 게으름에 묻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샤오홍은 여성의 안목으로 예리하게 그것을 파헤쳐 드러내고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를 소설 속에서 보여 준다. 얼마 후 마을에는 일본군이 쳐들어왔다. 그들은 왕도를 앞세우고 그 지역 전체를 삼키려 했다. 한바탕의 침략과 소탕이 있는 후 농민지도자 리칭산은 이번에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항일 혁명 지도자로 나선다. 살아남은 몇몇의 남자와 그보다 더 수없이 많은 과부들 앞에서 리칭산은 말한다. “형제들이여!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모든 마을 사람들의 소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형제들이여!²⁷⁾” 과부들은 크게 대답한다. “그래요! 모든 칼들이 원하고 있죠!” 이미 그들의 성별을 망각하고 형제로 칭해진 것에 응답한 과부들은 민족의 위기 속에서, 남성으로 대표되는 민족 주체 앞에서 자연스럽게 ‘남성’의 일부분으로 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남성’은 민족담론 실천의 대표자요 동시에 자아가치의 승인자이다. 허나 여성은 그 길을 가기위해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남성의 이름으로 나아가야한다²⁸⁾. 소설은 일본군이 소탕하려는 ‘항일세력’을 잡아들이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여인을 강간하고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 곳에서 샤오홍은 일본군이 마을의 여인을 잡아가고 왕포를 희롱하며 모욕하는 동안 그들의 앞잡이로 결에선 중국 남성들이 희죽거리는 모습을, 그리고 그들이 잡혀가는 마을 여인의 엉덩이를 슬며시 만지는 또 다른 모습을 카메라 렌즈처럼 포착해낸다. 샤오홍은 이를

27) 『生死場』, 앞의 책, p.301.

28) 劉禾, 「重返『生死場』: 여성과 민족국가, 『性別與中國』, 홍콩 삼련서점, 1994, p.75.

통해 여성을 모욕하는 남성 세계의 유치하고 비열한 공모를 드러낸다. 또한 생계가 막연해진 젊은 과부 진즈는 일본군의 마수를 피해 도시로 나온다. 그녀는 바느질을 해달라고 부른 남자로부터 성적 모욕을 당한다. 공포와 상심으로 고향에 돌아온 그녀는 비구니가 되려 암자로 가지만 이미 암자는 텅 비어있었다. 민족의 위기 속에서 남성이 되어 그들에게 귀속되어 함께 가지 않으면 여성은 갈 곳도 거할 곳도 없음을 소설은 보여준다. 마을에서 가장 어리석다는 얼리반이 항일전사로 나가는 장면과는 대조적으로 전사로도 나서지 못하는 젊은 여성 진즈가 마주한 현실은 어둡고 답답하기만 하다. 샤오홍은 이 소설에서 이처럼 복잡적이고 다단한 성과 계급과 민족의 기이한 만남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접근은 후기에 쓰여진 『후란허 이야기 呼蘭河傳』에서 민족성과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일체화된 담론이 역사적으로 여성을 얼마나 소외시키고 고통스럽게 하였는가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진다. 『후란허 이야기 呼蘭河傳』은 흔히 샤오홍의 자전적 소설이며 유년의 기억을 더듬어 쓴 역사성과 사회성이 약화된 샤오홍 말년의 모습을 보여준 소설이라 알려져 왔다.²⁹⁾ 그러나 여기에는 어른이 된 '내'가 어린시절의 '나'의 눈으로 보았던 봉건적이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향촌의 문화가 평범하고 우매한 사람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가했던 질곡과 모순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서 예리하고도 통찰력있게 메스를 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9) 이 소설의 序文을 쓴 문단의 선배이자 당시 유명 소설가 마오둔은 이 소설을 보고 한편의 다채로운 서사시이며 풍경화같다고 평했다. 또 치량한 노래와도 같다고 말했다. 또 이는 샤오홍이 말년의 칩거생활 속에서 적막한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茅盾, 『呼蘭河傳』序, 『蕭紅文集』 장편소설집, pp.191~192.

4. 역사 틈새 속의 여성 : 「다리 橋」, 「손 手」, 「소달구지 위에서 牛車上」, 「몽롱한 기대 朦朧的期待」

샤오홍은 그녀 소설의 주인공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는 작가이다. 그녀의 크고 맑은 눈동자처럼 그녀의 시선은 예리하고 투명하게 주인공의 내면 풍경과 그 삶의 궤적을 꿰뚫는다.

단편 「다리 橋」에서 서술자는 주인공 황랑즈의 발걸음과 내면 심리를 놓칠새라 쫓아다닌다. 황랑즈는 주인집과 다리를 사이에 두고 동서편으로 나뉘어 살며 주인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이다. 밤이고 낮이고 주인이 부르면 가서 젖을 먹여야 하는 그녀는 잠결에 채소장수의 외침소리에도 놀라서 깬다. “뭐야! 귀신이 날 불렀나? 아니야... 누가 불렀는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분명히...”³⁰⁾ 그 새벽녘, 그녀가 잠결에 주인집 문앞까지 뛰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은 멀기만 하다: “백팔십걸음도 안되는데... 많아야 이백걸음일텐데... 그런데 한 리나 돌아서 오는 것 같구나!”³¹⁾ 어느 날 낮인가 그녀는 주인집 아이의 유모차를 끌고 자기 아이를 보러 갔는데 마치 주인이 등 뒤에서 부르는 것같아 식은 땀을 흘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 이 소설에서 다리는 역설적인 의미를 지닌다. 본래 건널 수 없는 두 세계를 매개해 이어주는 속성을 지닌 다리가 여기에서는 황랑즈, 그녀 삶의 세계를 단절시키는 통로이다. 모성의 세계와 노동의 세계, 주인과 하인의 세계, 부와 빈곤의 세계. 얼마 후 자기 아이가 걸음마를 떼면서 자주 엄마를 보러 다리를 건너오게 되자 그녀는 난간이 허술한 나무다리가 걱정이 된다. 그리고 주인집 아이와 싸우는 것도 마음이 아프다. 삼 년의 세월이 흘러 튼튼하고 새로운 다리가 세워졌어도 그녀의 아이에게 다리 건너의 세계는 멀기만 하다. 몰래 건너다

30) 「橋」, 『蕭紅文集』 중단편소설집, p.129.

31) 「橋」, 『蕭紅文集』 중단편소설집, p.129.

가 아버지의 큰손에 잡혀오기 일쑤였던 그 아이는 어느 황혼녘, 엄마가 보고 싶어 다리 위를 뛰어오다 그만 저쪽에서 다가오는 아버지의 커다란 손을 보는 순간 실수하여 다리 아래로 떨어져 죽고만다. 황랑즈의 폐부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울음소리는 떨어져 죽은 아이의 노랫소리와 대조되어 아픔을 더해준다. “우리 엄마한테 가서 만두를… 먹어야지……. 엄마는 만두도 있고, …있고말고, 엄마는 사탕도 있어…”³²⁾

샤오홍 소설의 인물들은 도식적이지 않고 실제적이고 생명력이 넘친다. 또 다른 단편 「손手」에서 시골의 한 가내 염색공장 집 딸 왕야밍은 어려서부터 염색을 하다보니 두 손마저 푸르둥둥한 색으로 물이 들어버렸다. 그녀가 학교에 오자 선생님이며 친구들은 그 무서운 손이 싫다며 그를 경멸한다. 교장선생님마저 그녀에게 “네 손 말이야, 깨끗이 안 씻어지니? 비누를 많이 문혀서 잘 씻어봐, 뜨거운 물에도 담가보고, 아침체조 시간에 올라오는 수백개의 손은 다 하얀데, 바로 너, 너만 특이해, 특이하잖아.”³³⁾ 여교장은 학교 담장 밖에 봄이면 산책하는 외국인들도 많은데 창피하다며 손의 색깔을 지운 뒤 체조를 하라며 왕야밍의 아침체조를 금지시킨다. 왕야밍은 아버지에게 장갑을 사달라고 했으며 장갑을 끼면 괜찮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교장은 화가 나서 장갑은 더 깔끔하지 못하다며 그녀를 나무라고 시험도 치루지 못하게 한다. 결국 그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순진한 그녀는 데리러 온 아버지에게 집을 신고 갈 마차를 불렀느냐고 묻지만 가난한 아버지는 무슨 마차냐며 걸어서 정거장까지 가야한다고 일축한다.

이처럼 샤오홍이 주인공들의 삶을 통해 보고 발견한 것들은 평범하면서도 잔잔하고 아련한 아픔을 담고 있다. 이는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 감동 어린 슬픔의 불씨와도 같다. 그것은 1930년대 당시 문단의 주류가 되었던 역사와 시대를 이끌어야 할 혁명 이데올로기의 선양과 실천을 넘어서는 것

32) 「橋」, 『蕭紅文集』 중단편소설집, p.140.

33) 「手」, 『蕭紅文集』 중단편소설집, p.91.

이었다. 오히려 그녀는 역사와 시대의 대서사가 간과한 인간의 삶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틈새로 보이는 인간의 나약함과 우매함, 그리고 고통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또 다른 선택 지점으로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계급 모순의 역사, 인간성 모순의 역사, 여성의 고통스러운 경험의 역사, 사오홍이 보기에 이들은 결코 따로 따로 분리된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인간 삶의 모습마다 함께 존재하며 때때로 삶의 모순과 갈등, 소외와 비극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유력한 평자는 사오홍 문학이 보여주는 여성의 역사 통찰력이라 평한다³⁴⁾.

좀 더 나아가 사오홍은 시대와 국가가 지향하는 대의가 개인에게, 특히 여성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로 다가오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소달구지 위에서 牛車上」, 「몽롱한 기대 朦朧的期待」에 나오는 여인들은 이 통찰력있는 작가 덕분에 역사의 버려진 작은 틈새로 얼굴을 내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인 ‘나’는 외할아버지네 소달구지 위에서 외할아버지 댁에서 일하는 우원아줌마가 마차꾼과 나누는 ‘실비 오는 것 같은’ 말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깨곤한다. 우원아줌마는 군대로 나간 남편 우원아저씨를 기다리며 아들을 키우며 살아간다. 그녀는 어느 겨울, 돼지털을 팔러 장에 나갔다가 탈영병들을 데려와 총살시킨다는 벽보를 보게 된다. 그게 민국 10년에 있었던 탈영병 사건 아니냐고 묻는 마차꾼에게 우원아줌마는 “나는 그때가 어떤 해인지도 몰라요…어쨌든 총살을 하든 안하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 돼지털을 다 못판 것이 재수없다고 생각했지요…”³⁵⁾라고 대꾸한다. 그런데 글을 모르는 그녀는 어떤 사람이 읽는 탈영병 명단 속에 자기 남편의 이름도 있음을 발견한다. 영문도 모른 채 돼지털조차 팔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돌아온 그녀는 그날부터 남편의 생사를 알기 위해 아이를 들쳐업고 동분서주한다. 탈영병을 실은 배가 들어오는 날, 그

34) 戴錦華·孟悅, 앞의 책, p.184.

35) 「牛車上」, 『蕭紅文集』 중단편소설집, p.121.

녀는 자신의 남편은 주동자여서 나머지 몇사람과 예까지 오지도 못하고 '법대로' 처리되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녀는 이후 아버의 생사도 모르는 여덟살 된 아들을 두부 공장에 들여보내고 자신은 '나'의 외조부 댁에서 남의 집살이를 한다. 그녀는 지금 일년에 두 번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몽롱한 기대 朦朧的期待」는 중일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쓰여졌다. 그러나 당시를 배경으로 한 여느 소설들과는 달리 전쟁의 참화는 배경으로 물러나 있다. 소설은 주인 마님을 모시는 스물다섯살의 여복 리마의 긴장된 심리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리마는 주인집 호위병 진리즈를 내심 짝사랑하고 있다. 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특무병으로 전장에 나간 이후 리마는 마음을 졸이며 그를 그리워한다. 당시 심각하고 엄중한 국가적 위기와 전쟁에 대응하는 애국심 고취는 틀에 매이지 않는 샤오홍의 필치 속에서 다음과 같이 해체되고 있다.

“리마는 최근 유행하는 군가를 모두 부를 줄 아는데 특히 ‘중화민족은 가장 위험한 때를 맞았네’라는 구절을 좋아한다. 이 구절을 부를 때면 그녀는 군인의 발걸음마저 흉내낼 줄 안다. 그녀는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진리즈가 좋아하기 때문이다.³⁶⁾”

어느 날 진리즈의 연대가 마을을 지나는 길에 진리즈는 잠시 집에 들러 간다. 리마는 그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마님 곁에서 그의 주의를 끌기 위해 노력한다. 그녀는 그간 모은 월급을 그에게 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진리즈는 어느 사이에 바쁘게 떠나버린다. 허탈한 마음에 그녀는 몇 년전 고향 마을에서 홍군(紅軍)에 나가 돌아오지 않은 애인을 생각한다. “그는 모든 것이 잘 될거라고 하면서, 군대를 마치고 돌아와 그녀에게 장가들겠노라고 말했었다. 떠날 때에 그녀에게 꽃무늬 베 한 필까지 주었었다. 예전에 그녀는 집에서 그 꽃무늬 베를 보면서 울곤 했었다. 지금 그녀는 또

36) 「朦朧的期待」, 『蕭紅文集』 중단편소설집, p.166.

한 명의 특무병을 전선에 보냈다. 그는 항일전쟁에 이기면 돌아와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잘 될거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는 떠나버렸다.”³⁷⁾

5. 역사 틈새 속의 남성 : 「도피 逃難」, 『마바울 馬伯樂』

어찌보면 샤오홍의 소설 속에서 1930년대는 다각도로 해부되고 있다. 특히 후기 작품인 「도피 逃難」, 『마바울 馬伯樂』을 보면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당시 위선적인 남성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두 편의 소설은 샤오홍의 예리하고 통쾌한 유머와 풍자적 언어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것은 영웅을 요구하며 대서사를 중시하는 역사와 시대를 향한 도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성에 대한 비판이다. 이 두 소설의 주인공은 1930년대 항일혁명 시기의 남성 지식인이지만 동시대의 여타 소설에서는 조금은 찾아보기 힘든 인물형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바울과 허난성이라는 남성인물의 등장은 그 자체가 흥미로운 문학적 사건일수도 있다. 그들은 역사와 시대의 재난 앞에서 언제나 ‘항전’ 대신에 ‘도피’를 택한다. 그들은 모두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가족을 돌보기보다는 자기자신을 돌보는데 급급하다. 그들은 늘상 “빌어먹을 중국인”이라든가 “그때가서 또 어떡하나”라는 부정적이고 대안없는 말을 뱉먹듯이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뛰어나게 잘난 점도 없을 뿐더러 그다지 장점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샤오홍은 이들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역사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허위와 진실의 면모를 보여준다. 「도피」의 주인공 허난성은 그보다 1년 후에 쓰여진 『마바울』의 주인공 마바울과 참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 그들은 겁 많은 지식인들이며 불안한 역사적 시기

37) 「朦朧的期待」, 『蕭紅文集』 중단편소설집, p.168.

에 어디로, 어떻게 도망갈 것인가만 궁리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들의 비열한 말투나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며 대하는 태도도 비슷하다. 샤오홍은 아마도 「도피」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마바울』의 비슷한 장면 속에 집어넣었던 것 같다.

「도피」의 주인공 허난성은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래도 그가 싸우지 않고 도피하려는 것과 부합되지 않는다. 역사교사와 도피, 이처럼 상호 대치적인 상황과 언어의 설정을 통해 인간의 양면성을 바라볼 수 있다. 서술자는 이미 허난성의 심사를 꿰뚫어보면서도 일부러 모르는체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는 학생들이 조직한 항일구국단의 지도교사였으므로 떠나기 전에 학생들에게 몇마디 말이라도 해야 했다. 그는 무엇이랴 말할지 준비하지 못했으나 서두에서 나는 삼 사일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는 떠나면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은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 했고…… 나머지는 그와 해방구는 함께 살고 함께 죽을 것이라며 그는 결코 도피하지 않겠노라고 말했다.”³⁸⁾ 그가 그의 가족들과 기차역에서 타려던 기차를 놓치고서 하는 말은 이러한 그의 허위의식을 뒷받침해준다. “빌어먹을, 중국인들은 도망가는데는 목숨을 걸면서 항전을 한다고? 도망이나 해라.” 그는 ‘도망’이라고 말하고 나서 정거장에 행여 자기의 학생이나 아는 사람이 있나 사방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것을 보고 다 찢어진 장삼을 한번 흔들고는 말한다. “이제야 됐네, 여기는 아직 적의 그림자가 없어, 놀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구만, 끼어 죽겠어, 마치 궁둥이 뒤에서 대포가 쏘아대는 것 같아.”³⁹⁾

『마바울』에서 주인공 마바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도 야곱, 요한, 요셉이다. 그는 겁이 많고 생각이 허황된 사람이다. 그는 소설 읽는 것을 좋아해서 자신도 글을

38) 「逃難」, 『蕭紅文集』 중단편소설집, p.173.

39) 「逃難」, 『蕭紅文集』 중단편소설집, p.176.

쓰기를 원한다. “특히 중국에서 중국의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항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늘 탄식하기를 ‘내가 만일 작가라면 항일운동을 지도하지 않으면 안될거야, 중국이 항일을 안한다면 해방의 그날은 없을거야.’” “만일 항일에 대해 쓴다면 바로 지금이 때가 아닌가? 이는 정말 지도자의 책임을 지는거야.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야?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일인데.”⁴⁰⁾ 이는 비록 미완성 스토리이지만 1,2부로 나뉜 장편소설이어서 마바울과 그 가족이 도망가는 과정과 가족간의 심리 묘사는 「도피」보다 더 구체적이다. 샤오홍은 마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항일 전선과 시대 담론 바깥에 존재하고 있던 많은 인간 군상 중의 한 남성형상을 구현하고 있다. 이 작품 역시 서로 상치되는 서술구조가 사람으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예를 들어 마바울의 부친은 기독교를 믿고 영어를 쓰는 등 서양적인 것을 숭상하면서도 봉건사상을 그대로 가지고있는 위선을 드러내고 있다. 마바울은 부친의 이러한 사상을 싫어하면서도 그도 역시 서양 숭배에 빠져 늘상 ‘빌어먹을 중국인’이라는 말을 달고 산다. 남성으로서 마바울은 결코 기대에 부합하는 인물형상은 아니다. 그는 항전시기의 도망자이며 비겁하고 교활하다. 또 처자에 대해서도 이기적이며 남편으로서도 방종한 생활을 한다.

샤오홍은 이 작품에서 거의 구어체 글쓰기를 하고 있다. 대체로 여성들이 수다를 떨 때 쓰는 어투와 비꼬는 듯한 반복의 어휘와 어조로 이야기를 진행시킨다. 마바울이 상하이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돈을 다 써버려 집에도 갈 수 없게 되자 그는 칭다오에 있는 그의 아내를 어떻게 오게 하여 집으로 갈까를 궁리한다.

“그는 이런 격식에 맞추어 생각하기 시작한다”

“인생에 가장 재미없는 것은 돈이 없는거지”

“도망가려면 먼저 도망가게 수야”

40) 『馬伯樂』, 『蕭紅文集』 장편소설집, pp.228~229.

“일본이 쳐들어오면 도망 안가면 안되겠지”

“일본이 칭다오에 쳐들어오면 마누라가 상하이에 오지 않으면 안될 걸”

“마누라가 도망을 때는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될 걸”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일본이 칭다오에 쳐들어오지 않으면 마누라는 안을 지도 몰라”

“마누라가 못와도 집으로는 돌아가야 하는데”

일단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 그는 노래가 절로 나왔다.⁴¹⁾

이처럼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수다떨기 식의 언어와 불분명한 중얼거림은 서술자가 마바올의 경박하고 비열한 근성을 풍자하기에 적절해 보인다. 샤오홍은 이들 작품에서 특유의 유우머와 풍자, 그리고 전달 언어로서 중얼거림의 언어를 운용하여 당시 소설쓰기에 있어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당시 대부분의 작가들이 항전과 혁명이라는 역사 주류 이데올로기에 몰입하여 간과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 군상의 이면을 들추어 낸 것으로 샤오홍의 예민하고 비범한 필치가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6. 맺음말

최근 중국의 현대문학 연구자들은 종종 샤오홍과 루쉰의 문학 사이에 어떠한 유사점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루쉰은 샤오홍을 문단에 데뷔시켜주고 그녀가 전도유망한 작가라는 점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것은 그가 신문학 초기에 「광인일기」나 「아큐정전」을 써서 중국의 민족성 개조와 봉건 문화의 인간에 대한 폄박을 비판했던 사실로 보아 샤오홍이 대스승인 그에게서 그러한 점을

41) 『馬伯樂』, 『蕭紅文集』 장편소설집, p.291.

배우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혁명과 항전, 애국애족의 시대라는 주류 담론의 주변에서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인간 마음의 역사, 사회관계의 역사’를 탐구했다는 점에 있다.⁴²⁾

샤오홍이 문단에 들어선 1930년대에 여성작가의 지위와 정체성은 5.4신문화 운동 시기처럼 새롭고 신선한 지식여성으로서의 지위라기보다는 항일과 혁명에 다 함께 매진해야 하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존재하여야 했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서 대하는 역사와 세상은 국가와 민족을 강조하는 주류 담론에서처럼 명쾌하고 확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시대와 혁명의 전선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오히려 그 전선에서 낙오되고 뒤쳐지고 자아의 욕망과 역사의 대서사의 틈바구니에 끼인 사람들의 삶에 눈길을 돌린다. 그것은 1930년대 당시 문단의 주류가 되었던 역사와 시대를 이끌어야 할 혁명 이데올로기의 선양과 실천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녀는 역사와 시대의 대서사가 간과한 인간의 삶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틈새로 보이는 인간의 나약함과 우매함, 그리고 고통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또 다른 선택 지점으로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계급 모순의 역사, 인간성 모순의 역사, 여성의 고통스러운 경험의 역사, 샤오홍이 보기에 이들은 결코 따로 따로 분리된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인간 삶의 모습마다 함께 존재하며 때때로 삶의 모순과 갈등, 소외와 비극을 만들어낸다. 좀 더 나아가 샤오홍은 민족과 국가가 지향하는 역사적 대의가 개인에게, 특히 여성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로 다가오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이 부분에서 샤오홍이 취했던 주변인의 입장과 여성 입장이라는 것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본다. 중심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더 폭넓게 읽어 낼 수 있었던 그녀는 여성 입장의 “讀史者”⁴³⁾—역사를 읽었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42) 錢理群, 「魯迅與蕭紅—文學血脈的貫通」, 『精神的煉獄』, 廣西教育出版社, 1996, p.225.

43) 孟悅, 「歷史與讀史者」, 『歷史與敘述』, 陝西人民出版社, 1998, p.14.

□ 참고문헌

1. 작품집

- 范橋, 盧今 編, 『蕭紅散文』,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5.
『蕭紅文集·長篇小說集』, 安徽文藝出版社, 1997.
『蕭紅文集·中短篇小說集』, 安徽文藝出版社, 1997.
『蕭紅文集·散文詩歌及其他』, 安徽文藝出版社, 1997.

2. 단행본

- 김철·권제봉 저, 『중국현대문학사』, 청년사, 1989.
葛浩文 著, 『蕭紅新傳』, 香港三聯書店, 1989.
戴錦華·孟悅 著, 『浮出歷史地表』, 河南人民出版社, 1989.
李小江 主編, 『性別與中國』, 香港三聯書店, 1994.
盛英 主編, 『二十世紀中國女性文學史·上』, 天津人民出版社, 1995.
錢理群 著, 『精神的煉獄』, 廣西教育出版社, 1996.
孟悅 著, 『歷史與敘述』, 陝西人民出版社, 1998.
皇甫曉濤 著, 『蕭紅現象』, 天津人民出版社, 2000.

Abstract

**Fortuitous Encounter of Women, Class and Nation in the Narrow
Zone of History**

— Chinese woman writer, Xiao Hong's Novel in 1930s

Oh, Kyoung-Hee

The critics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estimate that Xiao Hong and Lu Xun have the common feature. Both great writers investigate the radical and fundamental issue, "the history of human mind, the history of the social relationship" rather than the historical main discourse, the revolution and the resistance.

When Xiao Hong made her debut on the literature stage in the 1930s, the situation of woman writers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eriod of the May 4th movement. They had to live as a member of the people who struggled on the resistance to Japan and the revolution confronted with their country rather than as a woman of the liberated intellectual.

Xiao Hong not only criticizes the main discourse of the history but also reveals the human nature, the contradiction and the complicated matters that exist in the marginal part of the history with the deeper and wider insight. She understands that the problems of nation, gender and social class have got complicated in the human mind. The theme of her novel is too multi-layered and complex, so that we do not approach it in the one single direction.

The greatest spiritual pivot of the novel of Xiao Hong is the love of life and human beings. Moreover she describes the individual characters and their psychology prominently through her insight with gender perspective into marginal beings of

history.

This paper, based on the above point of view, examines the life of Xiao Ho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her works. Through this study, we expect to understand Xiao Hong's literature more profoundly and to evaluate its literary value.

key words : 1930s, narrow zone of history, woman, class, nation, insight of gender perspective into history

■ 위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 심사 완료 후, 11월 3일 게재가 확정되었음.